

日 검역 강화에 제주산 광어 수출도 '불안'

일본 수출규제, 제주 영향은

일본이 제주산 양식 광어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활광어 수출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번 일본의 결정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에 이은 제주산 양식광어 수출 검역 강화 조치로 국민적 공분을 자극시킬 가능성이 크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일본이 지난달부터 제주 양식 광어 수입량에 대한 검역 비율을 20%에서 40%로 올렸다. 통관 모니터링의 표본을 샘플링하는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일본은 식중독을 유발하는 쿠도아충에 대한 집중 검역을 우려해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쿠도아충' 차단 이유로 검역비율 20→40%로 늘려 명분 놓고 해석 분분... '아직 수출물량 변동 없어'

쿠도아충은 광어 등 다양한 어종에 감염돼 매우 광범위한 숙주 특성을 갖고 있는 기생충이다. 인체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쿠도아충에 감염된 광어를 날 것으로 먹은 사람이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학자들은 일본에서 내놓은 쿠도아충 연구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연구와 동일한 조건으로 분석했을 때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인을 쿠도아충이라

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제주도 관계자는 "당초 검역비율을 20%로 결정할 때에도 쿠도아충을 명분으로 내세웠다"며 "이번 결정도 수년 전과 같은 이유"라고 의아해 했다. 이 때문에 주변에서는 WTO(세계 무역기구)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등에 따른 보복조치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제주산 광어 수출에는 큰 변동이 없다고 제주자치도는 설명했다. 제주도의 제주산 광어 수출동향을

보면 6월 일본 수출량은 107t이다. 전년(110t)보다 3t 줄었지만 전년 같은 기간(103t)보다 4t 늘어났다. 하지만 연도별로 보면 일본 수출은 2009년 4220t에서 지난해 1878t으로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돼 긴장을 늦추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 관계자는 "규제 비율을 높였지만 전년과 비교하면 수출물량에 변동이 없다"며 "외교 관련 문제가 대용 방침에 따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차원에서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소비촉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원도심 자원 엮어 야간 도보관광 개발을"

도의회 문광위 토론회서 이보연 한라대 교수 제안 '추진단' 필요성 등도 제기

제주시 원도심 주변지역을 야간 도보관광 코스로 개발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야간관광 상품 개발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가칭) 야간관광콘텐츠 추진단 구성·운영도 제안됐다.



지난 26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보연 제주한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도의회 제공

야간관광 활성화 전략' 주제발표에서 "최대한 자연·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상품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

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로마의 도보, 자전거, 스쿠터, 세그웨이 투어를 예로

들며 제주시 원도심 주변지역을 야간 도보관광 코스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상설 문화관광프로그램 개발과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등과 연계한 야간 관광프로그램 기획, 야간 레저·스포츠활동 개발을 비롯해 랜드마크가 될 만한 쇼펄, 음식,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장소 개발 필요성도 피력했다.

아울러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야간관광 할인카드 도입, 야간관광 조성을 위한 체계적 계획 수립, 야시장·지역 상가 등과 연계한 야간 시티투어버스 운행 등 제도적 지원체제 및 인프라 구축과 야간관광 홍보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어 정도연 브로콜리 404 대표는 '제주 야간관광 실태와 향후 과제' 주제발표에서 "야간관광은 장소 전체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콘텐츠의 집합체로 통합 추진단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제주음식박람회서 손맛 겨루세요"

음식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제주시는 오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제주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개최하는 제4회 제주음식박람회 음식경연대회 참가자를 8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탐라순미도(耽羅巡味途) 영주십미(瀛州十味)' 제주만이 주는 특별한 비법 찾는다'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총 9개 분야·13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제주만의 천연기념물 식재료인 흑우, 흑돼지, 제주마와 지역 농·수·축 특산물을 이용한 요

리경연으로 1차 서류 심사(8월 16일)를 통과한 참가자 대상으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현장 전시 및 조리경연이 진행될 계획이다.

전국 단위 행사로 진행되는 이번 경연의 출품작에 대한 시상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1개 부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3개 부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 제주시장상 등의 상장과 총 상금 1530만원이 주어진다.

신청접수는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 고시공고 및 세소식 게시판에서 대회요강을 확인하고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제주시 위생관리과(728-2621-2)로 방문 및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로컬푸드를 활용한 제주 외식상품을 발굴·육성하고 외식 내수시장 활성화를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대리기자

제주의 속살 거닐며 힐링하세요

2019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8차 참가자 모집

한라일보는 4월부터 12월까지 매달 2회 주말을 이용한 힐링 프로그램인 2019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를 실시합니다.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으로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제주자연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를 활용한 생태관광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에코투어 프로그램은 제주자연의 속살을 직접 보고 걸으면서 일상의 쉼을 위로받고 치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19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프로그램 참가 신청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ecotour.ihalla.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8차 에코투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 일시: 2019년 8월 10일 8시 ~ 16시
- ▶ 대상: 국내외 관광객 및 제주도민 (20세 이상 성인 참여 가능)
- ▶ 모집인원: 40명 (선착순 마감)
- ▶ 코스: 5·16도로 ~ 숲길 ~ 백록계곡 ~ 웃말레도 ~ 한라산둘레길 ~ 숲길 ~ 선돌계곡 ~ 선돌선원 ~ 선덕사 ~ 5·16도로
- ▶ 집결지: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문, 08시 대형버스로 이동
- ▶ 준비물: 배낭, 등산화, 긴팔, 긴바지, 모자, 장갑
- ▶ 신청기간: 2019년 7월 29일 ~ 8월 6일
- ▶ 참가접수: 한라일보 인터넷 에코투어 홈페이지(<http://ecotour.ihalla.com>)
- ▶ 참가비: 1만2천원 (여행자보험·중식비 등 포함)
- ▶ 입금계좌: 농협 301-0104-3643-81 (예금주: 한라일보)
- ▶ 문의: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사무국 ☎ 064)750-2291, 2151

내년 10월 첫 부과 '교통유발부담금' 제주시·서귀포 부과액 100억 넘을 듯

행정시 집계 결과 보니... 관광지 밀집지 부과액 높아 롯데호텔 3억8000만원 최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앞서 올해 부과 기초자료를 정비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제주시 지역의 경우 부과대상 시설물은 1923동, 부과액은 58억여원이다. 또 서귀포시지역은 899동, 부과액은 47억여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서귀포시의 경우 제주시보다 전체적인 부과액은 적게 책정

됐으나, 부담액이 높은 상위 3곳은 오히려 관광지가 밀집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시에서 부담액이 가장 많은 곳은 중문관광단지 소재 '롯데호텔 제주'로 3억8000만원이 책정됐다. 이어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3억5000만원 ▷해비치 호텔 앤드 리조트 3억4000만원으로 상위 3곳 모두 서귀포시에 집중됐으며, 제주국 제공항이 3억38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라마다프라자 제주 호텔, 메종글래드 제주호텔, 롯데시티제주 호텔 등은 2억원대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예상됐다.

교통유발부담금 시행에 앞서 양 행정시는 8월10일까지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신청받고 있으며, 경감심의위원회는 이행실적을 검토해 감면비율(0%에서 최대 90%)을 결정할 후 2020년 10월에 최종 결정 고지할 계획이다. 고대리·이태훈기자

재단법인 서울제주도민회 장학회

2019년 제2학기 장학생 신청서류 접수 안내

본회에서는 제39차(통산103차) 장학생 선발 안내를 하오니 기간 내에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발대상 (자격)

- 1) 출신 및 대학 :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 회원의 자녀로서 4년제 이상 정규대학 재학생 또는 제주거주도민의 자녀로서 제주도 이외에 소재한 4년제 이상 정규대학의 재학생
- 2) 성적기준 :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B학점(또는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인자를 원칙으로 함. 다만, 경제적으로 특히 어려운 경우 B학점 미만의 자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원 가능함.
- 3) 취득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4) 제외대상 : 신입, 편입의 경우 당해학기의 재학생

구비서류

- 1) 본회 소정 양식의 지원서(명함판 사진 부착)와 추천서 각 1통
- 추천서는 총장 또는 학장 추천이어야 하며 반드시 원본·직인·날인이 있어야 함.
- 2) 접수기간 내에 발급한 재학 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 확인서 1통
- 3) 접수기간 내에 발급한 성적 증명서 1통
- 4) 총장 또는 학장서장, 학장이 발급한 2019년 2학기 장학금 수여여부 확인서 1통
- 5) 학교 및 타 장학단체 장학금 수여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200만원 미만 수여자는 예외
- 6) 등록기준지나 원적지가 제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 증명서 1통
- 7)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 8) 보호자의 등록기준지나 원적이 제주가 아닌 경우 신청인 본인이 제주에서 초·중·고를 수학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통
- 9) 부·모 각각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기간: 2019.1.1.~2019.6.30) 확인서 각 1통
- 10) 부·모 각각의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각 1통
- 11) 부모 이외의 자가 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 확인서 1통 (9~1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

접수방법 본회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소인 인정)만 가능

접수처 (재)서울제주도민회장학회(Tel.02-3662-2650) 07526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7길 10-10 탐라영재관 4층(기양동)

참고사항

- 1)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2) 장학회 이사 및 선정위원은 장학 대상자를 추천할 수 없습니다.
- 3) 접수 마감 일시까지 미비 된 서류가 있으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4) 본회 소정양식은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 홈페이지(www.jejuinseoul.com)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5)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는 개별통보하며 지급일정은 홈페이지 참조바랍니다.

2019. 7.

(재)서울제주도민회 장학회 이사장 백 명 윤